

2025 * No.52
May+June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

독자정보 변경과 구독 증지는 웹진과 독자 엽서,
전화를 통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자 엽서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행복의 씨앗



©최성한_봄.봄바람

동서식품

*
COVER
STORY

한 송이 예쁜 민들레가 흩씨가 되어
새하얀 털을 달고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운명은 순리대로 받아들여야겠지요.
노란 봄이 만연한 세상이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뿌리내릴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나의 터전이니깐요.



봄.봄바람_최성환[2011 作 | 117cmx91cm | 마천에 혼합 채색]

Vol.52
2025.05+06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CONTENTS

- | | |
|--|---|
| 04 차 한 잔의 향기
윤성근 한책 수집가 | 36 우리집 식물원
내 마음은 그대만이 아네, 장미 |
| 08 문학의 향기
이웃들 | 38 일상의 향기
살면서 한 번쯤 만나게 될, 행운 |
| 12 길 위의 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 42 스마트한 생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하기 |
| 18 올 댓 커피
한국 커피의 최초를 찾아서 | 44 행복 레시피
두릅을 올린 구운 두부 & 맥심 바나나 케이크 |
| 22 한국의 재발견
세종대왕 탄신송모제전 | 46 동서 뉴스
동서식품의 다양한 소식 |
| 26 클래식 산책
펠릭스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Op.61〉 | 48 삶의 향기 뉴스
독자 이벤트 후기와 엽서 분석 |
| 30 도시를 걷다
노잼도시 대전 여행이 재밌어지는 도시 인문학 | 50 게시판
독자 의견 및 퀴즈 |
| 34 맛있는 이야기
영양 만점 건강식 '다슬기' | 51 브랜드 스토리
동서식품 제품 이야기 |

통권 제 52호 발행일 2025년 5월 1일 발행(격월간·비매월)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등록번호 마 00005 발행인 김광수
발행처 동서식품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별로55 홈페이지 www.dongsuh.co.kr 편집·디자인 케이아트만(주) T.(02)511-7053
인쇄 신영 T.(02)2275-1600 구독문의 편집실 T.(02)511-7053

이상한 나라의 모자장수

윤성근
헌책 수집가



처음 만났는데, 어딘가 모르게 친근한 기분이 든다. 그는 마치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모자장수를 연상하게 했다. 남색 페도라에 꼬불꼬불한 단발머리, 경쾌한 체크무늬 목도리만으로도 모자장수의 이미지와 절묘하게 겹쳤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책 한 권의 의미

활자 중독이라 불릴 만큼 어린 시절은 책이 전부였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는 성경책과 사전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재미를 느낀다기보다 빠르게 들어찬 글자의 행렬에 매료되었다. 두꺼운 전화번호부까지 손에 쥐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동네 헌책방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언젠가는 헌책방 사장이 되는 꿈을 꾸기도 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금호동에 있는 ‘고구마’라는 헌책방에서 일했어요.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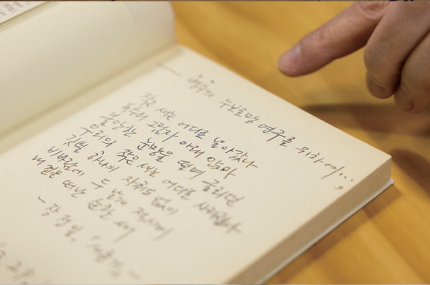
헌책방 직원으로 일하던 중 한 어르신이 책 한 권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왔다. 구라타 하쿠조의 <사랑과 인식의 출발>이라는 평론집으로, 1963년도에 나온 번역본을 원했다. 해당 연도에 출판된 책을 바로 찾아줄 수는 없어서 전화번호만 받아두고, 찾게 되면 연락을 드리기로 했다.

“그 책이 책방에 들어온 건 반년 정도 지난 후였어요. 기쁜 마음에 어르신에게 연락을 했죠. 택배로 보내드려도 되는데, 직접 와서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책을 가지러 오신다기에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귀본도 아닌 책을 오매불망 찾는 사연이 궁금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은행원이었던 어르신은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좋아했어요.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쉽지 않아서 <사랑과 인식의 출발>을 참고했죠. 그녀와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만큼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이라고 해야 하나? 풋사과 같았던 감정이 떠올라 책을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책 한 권이 또 다른 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삶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나중에 헌책방을 차리게 되면, 책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을 모두 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수료 대신 사연을 받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운영하며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책을 읽고 헌책을 수집하며 책방의 규모를 키워 나갔다. 헌책방 사장으로서 손님이 원하는 책을



찾아줄 때면,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게다가 사람들의 사연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은 셈이었다.

“실제로 헌책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헌책은 누군가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한 사람 이상 다른 주인을 거친 책 이기에 책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엮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헌책과 재미있는 사연(기담)을 함께 수집해요.” 절판된 책이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을 찾아 줄 땐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책의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수수료를 책정하는 일은 난해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책을 찾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수료를 받는 대신 사연을 받기로 했다. 재미있는 사연일수록 책을 찾는 우선순위가 된다.

“주로 삶이나 생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판된 책을 찾아요. 결여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빈공간은 타인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지난날 읽었던 책에서 배운 삶의 지혜만이 마음속의 벌어진 틈을 메꿀 수 있어요.”

책에는 이상하리만큼 묘한 힘이 있다.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고, 책을 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책 한 페이지가 치유의 묘약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고, 통찰력을 키워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우연히 헌책방에서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찬물 속의 한줄기 햇빛〉을 읽었어요. 젊은이들이 삶의 진정한 이유와 사랑을 찾아 방향하는 내용이라 그때 읽은 소설이 정말 와닿았나 봐요. 힘들 때마다 사강 소설에 나오는 젊은이의 고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모자장수는 앨리스를 좋아해

그는 어린 시절 읽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새로운 세상을 동경했다. 광산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잠시 강원도 태백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 탄광은 폐광이 된 곳이 많았다. “나무판자에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그럼에도 용기 있는 친구들은 그 곳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무용담처럼 폐광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소심했던 성격이라 용기가 없었어요.”

상상으로만 폐광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펼쳐질 일들을 그리곤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책은 그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줬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원서로 읽으면서, 어릴 적 동화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훌쩍 커진 키만큼, 그의 내면도 성장해 있었다. 언어의 유희나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본 책은 그의 세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앨리스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소장하고 싶었다. 책을 포함해 앨리스 굿즈를 수집했고, 앨리스 출간 150주년(2015년)에 열린 기념회에서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는 책방 사장이면서 작가이기도 하다. 2010년 첫 책인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시작으로 〈헌책방 기담 수집가〉, 〈서점의 말들〉, 〈내가 사랑한 첫문장〉 등 10여 권의 책을 썼다. 매년 한 권씩 책을 쓴다는 목표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다. 그에게 헌책은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게 돕는 특별한 물건이다. 책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알려준다.

“헌책방은 곧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최근에는 은평에서 마포로 이사도 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책방을 꾸려 나갈 생각입니다.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1년에 한 권씩 책도 쓸 수 있었는데요, 〈헌책방 기담 수집가〉 번역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일본과 대만 등 외국에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문학의 향기>는 매호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자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에세이 등으로 채워집니다.
살아있는 감수성과 힘있는 필력을 가진 작가들이 펼치는 문학의 정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수 필

The 70th Story

이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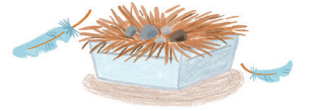
글. 이선행 일러스트. 조주홍



향나무 아래 놓인 평상이 멀찌감치 옮겨진다. 뒤통치를 들고 가까이서 새를 보려는 호기심 어린 눈길이 조용해진다.

“뒤꼍 환기구에 아기 새가 있어 모두 신기하여 들여다보는데요. 새들은 비밀스러운 공간을 좋아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타면 새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궁금하여도 모른 척 지나시길 부탁드립니다.”

30여 가구 주민들이 있는 단독방에 양해의 글을 올렸다. 그들은 당분간 무심한 척 새들을 바라볼 것이다. 때로는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사랑이다.



*

오래된 연립주택 주변에는 새들이 깃들 공간이 많다. 뒤꼍은 무농약 남새밭이어서 먹이가 될 만한 벌레와 곤충들이 술하다. 수령이 45년 된 향나무와 감나무 배롱나무 무화과나무 등 큰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서 있다.

낮은 벽에 잔가지들이 생긴다. 집이 나무를 들고 함께 살아간다. 작은 새들이 천적을 피해 알 낳을 곳이 급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곤줄박이가 우리 집 주방의 환기구로 들어와 푸드덕거리다 돌아나간다. 환기구를 쇠로 된 망으로 막는다. 이를 지켜본 옆집도 사다리를 놓고 환기구를 막는다. 환풍기를 켜면 새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옆집 사는 부부가 화분 놓는 거치대에 새들의 신방을 꾸미느라 분주하다. “화분에 꽃도 많이 피었으니, 새들이 좋아하겠지.”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스티로폼 작은 상자를 올려 놓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안쪽에 돌로 눌러 놓는다. 그 속에 마른 풀잎과 자잘한 나뭇가지를 넣어 새 둥지를 꾸민다.

텃밭에서 풀을 뽑거나 지지대를 세우던 사람들이 상자에 새가 들어가기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본다. 새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둥지에 사흘이 지나도록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대신 1층 끄트머리 집의 벽이 내민 공기 파이프를 들락거린다. 새가 물어다 놓은 지푸라기 등 어수선했던 것들로 벌써 연통 입구가 반쯤 가려져 있다. 비스듬히 보이는 실내에서 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임을 지켜본다.

얼마나 지났을까. 열어놓은 창문으로 작은 새소리가 들린다. 마치 시냇물 소리 같다. 먹이를 물고 온 어미 새의 꼬리가 연통 밖으로 살포시 내려져 있다. 동이 트기 전 잠에서 깬 아기 새들이 노란 부리를 벌리고 어미 새가 오기를 기다린다. 어미 새 한 쌍이 연신 먹이를 물어 나르느라 바쁘다. 남새밭 울타리에서 담벼락 위로 먹이를 입에 물고 망을 보다 어느 순간 박차고 날아오른다. 부등것을 가진 새끼 입에 먹이를 넣어 주고는 잼싸게 돌아나오기를

되풀이한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나면 녀석들이 숨을 죽인다. 평상에서 차를 마시며 떠들던 여인네들의 말소리도 잦아든다.

**



3년 전에는 장독대 옆에 향나무가 태풍에 쓰러진 적이 있다. 어른 키의 3배 정도나 되는 큰 나무가 모로 누웠다. 장독대에 웅기종기 모인 향아리를 비켜 울타리 하나 다치지 않게 오솔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얼마나 안간힘으로 허공을 움켜쥐었는지, 땅 위로 드러난 뿌리가 한동안 푸들거렸다. 쓰러진 나무 주위로 사람들이 모였다.

“나무를 벨 것인가 살릴 것인가.” 설왕설래한 끝에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장정 둘과 아낙들이 의기투합하여 향나무를 일으켜 세웠다. 북을 주고 지주목을 세웠다. 나무는 밧줄로 네 겹이 칭칭 감아올랐다. 빨랫줄이 된 낮은 두 겹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재 계단에 감아 묶었다. 향나무는 옥상 결 계단을 뿌리로 잡아 두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향나무가 묵은 잎을 떨치고 푸릇한 새잎으로 갈아입었다. 상체를 수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자세다. 팽팽한 힘에 무거운 빨래가 마른다. 향나무 아래 앉아 아낙들은 갓 뽑은 쪽 파나 상추를 다듬고 젖은 귀를 말린다. 향나무 가지에 어미 새들이 앉아 숨을 고른다. 아낙들은 감나무 밑으로 옮겨놓은 평상에 켠 고구마와 커피 등을 가져다 놓고 담소를 나눈다. 털매미 소리도 간간이 끼어든다. 담장 곁에 있는 장독대 향아리 속에는 된장꽃, 고추장꽃, 소금꽃이 핀다. 눈길로, 손길로 향아리를 쓰다듬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질그릇을 닦아간다.

평상 주위로 애기똥풀꽃 분홍낮달맞이꽃 조개나물꽃 등 야생화가 핀다. 그곳에서 개구리 등딱만큼 나누어 텃밭 농사를 짓는다. 퇴창만 한 터알이 새소리를 파랗게 물들인다. 상추나 쑥갓 씨를 뿌려 새싹이 빼곡해지면 서로 모종을 나눈다. 우리 집 고구마 줄기는 질긴 풀

들을 제치고 굳세게 뻗어나갔다. 꺾꽂이를 원하는 가구에 무성해진 줄기를 잘라 주었다. 꺾꽂이는 충분한 물을 주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발이랑을 달음박질친다. 우리 집에서 간고구마 줄기가 이곳저곳에서 자라는 걸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상추를 심지 않은 걸 알고 다른 집에서 나누어 주어 오히려 상추 부자가 된다. 오이 덩굴이 올라간 울타리에는 호미가 걸려있고 삽자루가 기대어 있다. 나비가 쌍쌍이 날아다닌다. 발가에 나비가 좋아하는 연보랏빛 열무꽃 서너 포기기를 남겨둔다.

평상에 나와앉은 이웃들은 몇 호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지, 누가 커피믹스를 좋아하고 블랙을 즐기는지 안다. 김치를 담그면 맨손으로 줄기를 찢어 입에 넣고 얼얼한 입술에 바람을 불어가며 간을 봐준다. 물론 남새밭에서 무공해로 지은 푸성귀들이다. 마당귀에서 뜻이 맞지 않는 걸 조율하느라 높은 언성이 들려올 때도 있지만 밤이면 풀벌레 소리가 귀를 쓰다듬는다. 미처 돌보지 못해 우리 텃밭이 말라 있으면 다른 집 호스 물줄기가 다녀간다.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면 곱하기의 힘이 된다. 갖가지 곤충과 새들이 이곳에서 저마다의 색깔을 내고 새끼를 친다. 다음에는 어떤 새가 날아와 동지를 틀까. 우리는 합심해서 몸을 낮추고 못 생명에게 기꺼이 팔을 벌려줄 것이다. 아웃에서 작은 작대기 하나를 빼면 이웃이 된다. 이웃의 정같이 앵두가 빨갭게 익어간다.

★ 작가PROFILE: 이선행
제17회 삶의황기동서문학상
수필부문 은상 수상



일곱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포르투갈의 수도 포르투갈, 리스본

포르투와 리스본, 어느 도시에 더 마음이 가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두 도시는 너무나 다르기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굳이 돌아해보면 리스본은 조금 더 시원한 풍경을 가진 도시였다.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도시 전체에 고저가 뚜렷하지만, 어디든 올라서면 어김없이 바다와 강이 함께 어우러진 전경이 펼쳐진다. 오래된 트램이 지나가는 골목과 파스텔톤 건물, 그리고 그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선까지. 셀 수 없는 깊이의 애정으로 담아왔던 리스본을 소개한다.

글/사진, 박재신 [여행작가]





28번 트램과 비카선 푸니쿨라

보편적으로 포르투갈 여행 중 이들 정도를 리스본에 할애하곤 하는데, 리스본 여행이 처음이라면 가장 먼저 둘러봐야 할 곳은 28번 트램 코스다. 마르티모 모니즈역에서 캄포 우리케역까지 오가며 알파마, 바이샤 등 리스본의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전역을 관통하는 트램이다. 더군다나 걷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면 길이 좁고 언덕의 높낮이가 번덕스러운 리스본 시내에서 트램을 타고 떠나는 여행은 필수적이다. 오래된 노란색 트램을 타고 구불구불 좁고 긴 알파마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나이 지긋하고 친절한 현지 도슨트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내부가 나무로 된 아담한 객실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말소리가 들린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운 좋은 날에는 기관사들이 핸들을 빼고 끼워가며 운전하는 트램 속 작은 공연을 볼 수도 있다. 1930년대부터 운영된 트램이니만큼 내부가 좁은 편이라 처음부터 종점에서 트램을 타는 것이 작은 팁이다. 그리고 아주 협소한 골목길에선 사람이나 차를 만나 트램이 정지해 있는 경우

도 허다해서 여유롭고 긍정적인 여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탑승하길 바란다.

리스본 시내에는 비카, 글로리아, 라브라 총 세 개의 푸니쿨라가 있다. 글로리아선이 가장 유명하지만, 나는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나왔던 비카선을 좋아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테주강 앞으로 지나가는 노란색 푸니쿨라를 볼 수 있는데, 첫 리스본 여행에서는 그곳이 비카선 푸니쿨라인지 알지 못했다. 여행하면서 포르투갈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한국에 돌아와서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찾아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비카선 푸니쿨라에 매료되어 다시금 포르투갈 여행을 결심했다. 반복되는 일상의 무기력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리스본에 이끌린 것처럼 말이다.

노란색 두 대의 푸니쿨라는 일자로 늘어선 철로를 기준으로 마주 보며 오간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짧은 역 사이를 지나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셈이다. 다만 약 4유로의 요금은 거리를 감안하면 저렴하지 않은 금액이다. 탑승해 보고 싶다면 리스본의 관광지 및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스보아 카드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보랏빛 가득한 5월의 리스본

포르투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포르투와 리스본, 어느 도시에 더 마음이 가는지.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녔기에 우위를 가리기 어렵지만, 단 하나의 시기만큼은 리스본을 더 추천하고 싶다. 바로 5월, 도시 전체가 보랏빛 자카란다 꽃으로 물드는 계절이다. 자카란다는 남미 원산의 식물로, 기후가 온화한 포르투갈 남부와 특히 잘 어울린다. 아프리카의 벚꽃이라 불릴 만큼 화사한 보랏빛 꽃이 나무 전체



1. 라브라선 푸니쿨라 인근 도시의 풍경.
2. 28번 트램은 리스본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3. 테주강을 배경으로 좁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비카선 푸니쿨라의 철길을 걷는 사람들.
4. 트램 거리 한가운데 있는 리스본 음식점, SANTA BICA. 지중해 요리를 판매한다.
5. 나우스 강변대로 근처에서 볼 수 있는 형형색색의 건물.



를 뒤덮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려 거리 전체가 연보랏빛 비단을 두른 듯하다. 꽃은 5월 초부터 피기 시작해 약 한 달 정도 만개한 모습을 유지하는데, 이 시기의 리스본은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에두아르두 7세 공원과 호시우 광장은 자카란다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대표 명소다.

에두아르두 7세 공원은 리스본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으로 유명하다. 마르케스드 품발 광장에서 북쪽 언덕 방향으로 펼쳐지는 이 공원은 1903년 영국 에두아르드 7세 국왕이 포르투갈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이름이 붙여졌다. 내가 자카란다와 처음 마주한 것도 이곳이었다. 숙소비용을 아끼기 위해 관광지에서 멀찍이 떨어진 숙소를 잡은 것이 의도치 않은 선물로 돌아온 셈이었다. 아침 일찍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그 위로 햇살을 받은 자카란다 나무들이 조용히 빛났다. 그 모습은 아이들에게 내려앉은 보랏빛 축복처럼 느껴졌다.

한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호시우 광장은 자카란다와 도시의 리듬이 함께 흐르는 곳이다. 호시우는 포르투갈어로 대중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오랜 세월 시민들의 집회와 축제, 일상의 교차점이 되어 온 리스본의 중심 공간이다. 중앙에는 페드루 4세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광장을 채운 ‘칼사다 포르투게사’, 포르투갈 특유의 전통 바닥 장식이다. 흑백의 조약돌이 파도처럼 물결치는 이 바닥은 포르투갈의 항해 역사와 도시의 미학을 상징하는 대표적 요소다. 흑백으로 물결진 파도 위의 알록달록한 건물들을 보고 있으면 리스본에 도착한 게 실감 나곤 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자카란다 나무에 보라색 꽃이 주렁주렁 필 때면 흑자는 광장에 무지개가 떴다고 말한다.

1. 5월이면, 도시 전체가 보랏빛 자카란다 꽃으로 물든다.
2. 리스본을 관통하는 1,038km의 테주강, Ponte 25 de Abril (4월 25일 다리)와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3. 코메르시우 광장으로 현지인들의 약속의 장소이기도 하다.



코메르시우 광장과 산타루치아 전망대

리스본의 남쪽 끝,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에 코메르시우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이후 도시 재건의 상징으로 조성된 이 광장은, 과거 왕궁이 있던 자리이자 포르투갈 해양 제국의 관문이었다. 정연하게 배치된 노란 건물들, 광장 중앙의 주제 1세 기마상, 그리고 아우구스타 거리로 이어지는 개선문은 오늘날에도 제국의 흔적을 뚜렷이 증명한다. 이곳은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약속 장소로 가장 무난한 공간이기도 하다. ‘상업’이라는 의미를 지닌 광장의 이름답게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주변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성해 누군가 약속에 늦는다 해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한가롭게 리스본을 거닐던 시간 속에서도, 나는 이 광장을 자주 찾았다. 특히 주제 1세 동상 아래 앉아 오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상은 나만의 작은 즐거움이 었다. 그리고 그 기마상이 마주하고 있는 방향 끝에는

바다로 착각될 정도로 광활한 테주강이 있는데, 포르투갈을 가로질러 대서양으로 이어진다. 리스본에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에 담아둔 장소가 있었다. 아는 사진작가의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짙은 구름 사이로 흘러든 누엣한 햇살 아래, 고요히 서 있는 성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곳은 바로 산타루치아 전망대였다. 리스본 동부의 알파마 지구 언덕 중턱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도시에서 오래된 지역 중 하나에 자리하고 있다. 알파마는 리스본 대지진에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골목 사이로 시간이 머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그 한가운데 자리한 산타루치아 전망대는 오래전부터 시민과 여행자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리스본의 풍경은 인상적이다. 붉은 지붕이 층층이 이어지고, 하얀 성당이 그 사이에 고즈넉히 서 있다. 전망대 아래 벽면을 따라 이어진 아줄레주에는 과거 리스본의 항구와 역사적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 풍경만 아니라 시간을 함께 조망하게 된다.

어떤 장면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결국 그 안에 담긴 이야기다. 그날의 기온, 공기의 밀도, 바라보던 마음의 결까지. 사진은 단순히 풍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느낀 감각들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다. 처음은 누군가의 사진을 따라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결국 그 자리엔 나만의 시선과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담은 사진도 또 다른 이의 여행을 시작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리스본을 재건하기 위해 애쓴 주제 1세 동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들.



Korea

한국 커피의 최초를 찾아서

우리는 역사를 아끼지만, 아끼는 만큼 역사를 연구하지는 않는다. 커피 역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 보여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최초로 마신 것이 고종 임금이었다는 주장,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던 1896년, 독일 여성인 손탁으로부터 커피를 배웠다는 주장,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손탁호텔'이었다는 주장 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랫동안 퍼져 있었다.

글. 이길상[커피인문학자, 교육학박사] 일러스트. 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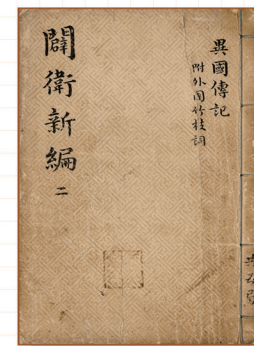


1861년,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으로 온 커피

우리의 커피 역사는 아관파천보다 무려 50년 가까이 이전에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선비가 커피라는 이국 음료의 존재를 알고,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은 1848년, 현종 14년이였다. 선비 윤중의는 <해국도지> 등 청나라에서 구한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문 지리서 <벽위신편>을 썼고, 이 책에서 필리핀의 특산물 커피를 소개했다. 이어서 1852년에는 실학자 최한기가 인문 지리서 <지구전요>를 쓰면서 커피를 다뤘다. <지구전요>에는 커피 관련 내용이 무려 열 군데 이상 등장한다.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랍 지역의 커피 주요 생산 국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미국 등 주요 커피 소비 국가의 커피 음용 방법을 기술했다.

윤중의와 최한기가 소개한 커피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61년 4월, 철종 12년이였다. 조선에 1856년에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신부 시메온 베르뇌가 마카오에 있는 전교회 동양본부에 부탁한 커피 원두가 서울 남대문 밖 자암마을(순화동 인근)에 인편으로 도착한 것이 1861년 4월 7일 새벽 5시였다. 새로 부임하는 프랑스 선교사 4명이 상하이에서 배편으로 출발하여 백령도 인근을 거쳐 김포 나루에 내렸다. 이곳으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들어왔다. 이들이 가져온 짐 안에는 무려 18킬로그램이나 되는 커피 원두가 들어 있었다. 커피 애호가였던 베르뇌 신부는 이것을 끓여서 함께 거주하던 조선인 신자들과 나누어 마셨다. 베르뇌 신부는 매년 같은 양, 간혹 그 두 배가 되는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 5천 잔, 많게는 1만 잔까지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

1866년 병인박해로 베르뇌 신부를 비롯한 프랑스 신부 9명이 순교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침략했다. 병인양요가 발발한 것이다. 이후 대원군이 주도하는 쇄국정책이 더욱 강화되었고 조선에는 서양인의 발자취조차 사라졌다. 커피 또한 더 이상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쇄국이 서양인뿐 아니라 커피조차 완벽히 차단했다. 조선은 결국 1876년, 이웃 나라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었고, 1880대를 시작으로 서양 여러 나라들과 잇달아 수교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겪으며 나라의 혼란은 극심해졌고 자주적인



윤중의 <벽위신편>
한국 최초의 커피 기록이 담겨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시메옹프랑수아 베르뇌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프랑스인 선교사로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 한 사람이다. © 위키피디아

근대화는 어려워져 갔다. 일본,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밀려들었다. 드디어 커피가 수입되고, 커피를 마시며 선교를 하는 사람, 커피를 마시며 외교를 하는 사람, 커피를 마시며 장사를 하는 이방인이 하나둘 나타났다.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으며 조선의 운명은 마구 흔들렸고, 대륙으로 향하는 일본의 야욕 앞에 나라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1883년, 조선에 최초로 커피가 수입되다

이 땅에서 다시 커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 것은 개항 이후였다.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과 이를 기초로 체결된 '조일무역규칙'은 지극히 불평등했다. 일본 물품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내야 할 관세를 면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약 협상 당시 관세 개념조차 몰랐던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었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일본이었다. 심지어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제7칙)는 특혜 조항까지 있었다. 식민지 미국에서 거래되는 수입차에 대한 과세 조치가 취해지자, 미국인들이 저항하며 발생한 것이 1773년 '보스턴 차(茶)' 사건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진 사실을 보면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국가 간 물품 이동에 따른 세금 부과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은 영국에 저항하여 이겼으나, 우리는 일본에 잠시 저항하였지만 실패했다. 강요된 불평등 조약을 바탕으로 조선의 상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면서 개항장에는 일본 상품과 일본인들이 수입하는 물품들이 넘치기 시작했다. 서양과의 수교 이후에도 일본 상품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수교의 확대로 외국과의 통상이 본격화한 1885년 1년간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는 윤선(기선)과 범선(돛단배) 합해 모두 104척이었고, 이를 통해 들어온 물건은 1만 4,674톤에 이르렀다.

조선에 커피가 최초로 수입된 것은 1883년 상반기 어느 날이었다. 일본 외무성이 편찬한 <통상회편>(通商彙編) 제2권에는 1883년 1년 동안 조선의 원산항, 부산항,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입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해 상반기(1월~6월)에 원산항으로 수입된 물품 목록을 보면 커피(‘珈琲’로 표기) 1원 69전 여치가 들어온 것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물가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1kg 조금 넘는 분량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반기에도 원산항으로는 24원 24전 6리 여치의 커피가 다시 수입되었다. 30kg이 넘는 비교적 많은 양이었다. 이어서 8월에는 인천항으로 커피(‘コーヒー’로 표기) 50개(本) 15원여치, 10월에는 인천항으로 커피 68근(斤, 25.5kg) 20원여치가 수입되었다.

치유의음료, 접대하거나 즐기거나

개항 초기에 수입된 커피는 조선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일정 부분을 소비했다. 왕실에서는 몇 가지 용도로 커피를 마셨다. 첫째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잦은 외교나 통상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나눠주었다. 1884년 1월 당시 경기도 관찰사 김홍집이 미국인 퍼시벌 로웰에게 대접한 커피가 그것이었다.

두 번째 용도는 왕실에서의 외국인 접대다. 1884년 5월 초대 영국 공사 해리 파크스의 딸 매리온 플러머 파크스(Marion Plumer Parkes)가 미국 푸트 공사의 부인과 함께 명성황후를 알현하기 위해 경복궁을 방문하였을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다. 이 외에도 서구권 국가의 사절이나 의료진이 왕실을 방문했을 때 제공되는 음료는 커피였다.

세 번째 용도는 커피를 즐기던 고종의 개인적 사용이다. 고종은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마신 첫 번째 임금이었을 뿐 아니라 꽤 즐겼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커피의 즐거움을 알려준 것은 아마도 호러스 알렌(H. Allen)이나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등 초기의 의료 선교사, 루시어스 푸트(L. Foote) 미국 공사나 해리 파크스(H. Parkes) 영국 공사와 같은 서양 외교관, 앙투아네트 손탁이나 폴 뮐렌도르프와 같은 서울 거주 외국인이었을 것이다. 고종은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일 정도로 커피를 늘 가까이하였다. 힘든 시기를 살아야 했던 고종에게는 커피가 주는 위안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서양 여러 나라의 수교와 함께 커피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커피 이외에도 조선을 방문하는 서양인들이 마시기 위해 가져오는 커피, 입국하는 외교관이나 상인들이 선물용으로 가져오는 커피, 기독교인들이 선교용으로 가져오는 커피 등이 적지 않게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는 길게는 180년 가까이, 적어도 160년 이상이다. 물론 역사가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역사를 잘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 태어난 5월 15일

그를 기리는
탄신숭모제전이
영릉에서 열린다

*



세종대왕 탄신 627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 행사 모습(2024년 5월 15일)_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해마다 5월 15일 아침 11시에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英陵)에서 세종대왕 탄신을 기리는 숭모제전(崇慕祭典)을 봉행한다. 숭모제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양력 5.15/음력 4.10)을 맞아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을 기리는 행사다.

글. 김영조[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문화신문 발행인]

외면받는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

《세종실록》총서에 보면 “태조 6년 정축 4월 임진에 한양 준수방(俊秀坊) 잠저(潛邸)에서 탄생하였다.”라고 세종이 태어난 때와 곳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세종대왕의 어릴 적 이름은 “도(禔)고, 시호는 장헌(莊憲)인데, 서기 1397년 5월 15일 태종과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 태어난 곳 준수방은 지금의 어디일까? 조선 전기 한성부의 관할구역은 크게 중부(中部)·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의 5부(五部)로 나누고, 그 가운데 북부(北部)는 광화방(廣化坊)·순화방(順化坊)·준수방(俊秀坊)·의통방(義通坊) 등 10방이 있었다.

그 가운데 준수방은 현재 종로구 통인동, 옥인동 일대로 경복궁 서쪽 문인 영추문길 맞은편 의통방 뒤를 흐르는 지금은 복개된 개천 건너편인데, 청운동을 흘러내리는 한줄기 맑은 물과 옥인동으로 내려오는 인왕산 골짜기의 깨끗한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다. 현재는 경복궁 전철역에서 북쪽으로 200여 미터쯤 가면, 길가에 초라하게 ‘세종대왕 나신 곳’이라는 표지석 하나만이 달랑 있을 뿐이다. 별로 행적이 없는 사람들도 생가 하나쯤 복원해 두는 세상인데 우리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세종 생가터 복원을 위해 뛰어다니던 20여 년 전, 서울시 담당공무원들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세종 생가터 복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세종이 태어난 사가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확인할 수 없고, 세종 잠저 모양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생가터 복원이 쉽지 않다고 한 적이 있다.

세종대왕 잠저, 기념관이라도 만들어 주기를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이 된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이 살던 집, 곧 세종의 잠저는 99칸 큰집이었다고 한다. 집 안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는 기록까지 전해지면서,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세워진 '준수방 표지석'이 바로 그 흔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역사 연구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체부동 시장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편까지 이르는 넓은 일대가 모두 세종의 잠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기록과 도시 구조, 그리고 주변의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서 비롯된 믿음이다. 건축물대장이나 사진·설계도·조감도 따위가 없어 생가터 복원이 안 된다면, 기념관이라도 지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오랜 소망이다.

일본 교토에는 교토를 건설했다는 50대 간무왕(桓武王)을 모시는 엄청난 규모의 헤이안 신궁이 있다. 1895년에, 헤이안쿄(교토) 천도 1,100돌을 기려 교토에서는 박람회(엑스포)가 열렸는데, 이때 주요 행사장의 하나로 쓰기 위해서 천도할 당시 궁성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으로 천도 당시의 5/8 규모로 지었고 박람회가 끝난 뒤 간무왕을 모시는 신사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이 2만 평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붉은 빛이 특징인 신궁은 1,100년 전 처음 세워졌을 당시의 정확한 규모나 모양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들의 옛 역사서인 《일본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지만 설계도나 사진 또는 그림이 전하지 않는 것은 뻔한 일이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근거가 없이 지었다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면서도, 그가 태어난 곳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념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는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란다.



2만 평의 터에 궁성의 5/8로 지었다는 일본 50대 왕을 기리는 헤이안신궁



세종이 태어난 곳을 알리는 길가에 세워진 초라한 돌비석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백성이 싫어하면, 밀어붙이지 않았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 사랑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임금도 따라올 수 없다. 한문에 능통하여 다른 글자가 필요 없을 정도인 세종이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을 쉽게 펼 수 있도록 새로운 글자를 만들 생각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뿐이 아니다. 당시 시간을 측정하고 알리는 것은 임금 고유의 권한이었다. 그런데도 세종은 오목해시계를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혜정교(현재 교보문고와 광화문우체국 사이에 있던 다리)와 종묘 남쪽 길가에 세우고 시간을 백성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해주었다.

세종은 당시 벼슬아치들이 공정성을 잃어 양반과 부자만 좋게 하고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음을 꿰뚫고 있었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백성이 싫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도자의 생각이 만능이 아님을 잘 알고 임금이라도 맘대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더하여 세종은 안건이 올라오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결정하더라도 신하들이 충분히 감론을박하게 하였다.

들판을 지나갈 때면 양산과 부채를 쓰지 않았으며 말을 타고 가다가 농부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걸어갔음은 물론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 점심을 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공법이라는 세제개혁을 시행하기에 앞서 직접 경기도 장단현 들판을 답사하기도 할 정도였다. 세종이 위대한 임금이라고 평가받는 것에는 오만하지도, 백성이 싫어하면 밀어붙이지도 않았던 데도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 글자 한글을 가진 나라다. 5월 15일은 우리에게 그 으뜸 글자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임금의 탄신일이다. 또 5달 후에는 제579돌 한글날이다. 우리나라는 세종임금의 탄신일과 한글날만 되면 한글을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른다. 하지만, 요란하게 행사한다고 해도 그들 각각의 마음속에 우리말 사랑 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닐까?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종대왕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법의 물약을 마시고 당나귀가 될지라도!

펠릭스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Op.61>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렉시스 하우스가 지휘하는
맥길대학교 오케스트라,
맥길대학교 합창단의
<한여름 밤의 꿈>전곡 연주.



지휘자 파보 예르비와 프랑크
푸르트라디오 오케스트라가
<한여름 밤의 꿈> 중
1곡~7곡을 연주.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 라이프
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가 <한여름 밤의 꿈> 수록곡 중
가장 유명한 '결혼 행진곡' 연주.

마법과 사랑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한여름 밤의 꿈』을 읽었던 17세 소년 펠릭스 멘델스존.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 편의 신비하고 환상적인 극음악 <한여름 밤의 꿈>을 작곡했다. 사랑에 빠진 몽롱하고 또 황홀한 순간을 위한 노래는 극음악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서 또 연주된다. 멘델스존은 오늘날 수많은 결혼식의 퇴장 음악으로 '결혼 행진곡'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글: 정은주 [음악 칼럼니스트]

부잣집 도련님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 (1809-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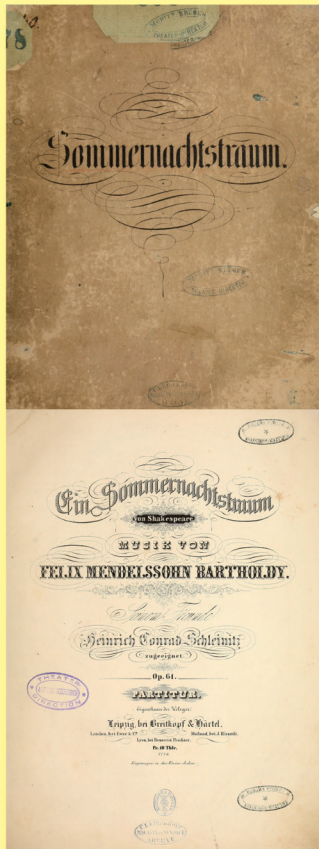


펠릭스 멘델스존은 독일에 정착해 살던 유대인의 후손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당대 유명한 철학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가족 은행을 경영했다. 굉장히 유복했던 환경에서 1809년 2월 3일 오늘날의 독일 함부르크에서 멘델스존이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그림 그리는 일에 큰 흥미를 느꼈다. 6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음악 공부는 악기 연주부터 작곡 및 연주로 빠르게 이어졌다. 그의 아버지가 파리의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파리의 유명 음악가에게 음악을 배웠다.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약 14곡의 실내악곡을 작곡했고, 13세에 첫 작품집을 출판했을 정도로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다. 15세의 멘델스존은 약 40편의 풍경화를 그렸다. 그는 가족과 함께 스위스, 이탈리아 여행을 하며 본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다. 작곡 공부에 힘썼던 그는 26세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지휘자, 교수, 음악사 학자, 작가, 번역가, 오페라 감독, 극장의 예술 감독 등 그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특히 1835년부터 1847년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한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지휘했다.

왕의 연극을 위한 음악 <한여름 밤의 꿈>

1842년 멘델스존은 당시 프로이센 왕립 예술 아카데미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음악 감독으로 일하던 중이었다. 당시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연극 감상을 무척 좋아했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을 포츠담의 새 궁전에서 공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기 국왕은 멘델스존에게 이 연극의 음악 작곡을 부탁했다. 마침 멘델스존은 17세 무렵 『한여름 밤의 꿈』을 읽고 감동하여 <서곡 E장조, Op.21>를 작곡했었다. 국왕의 요청을 받



1848년 독일 라이프치히의 출판사 브라이тко프 & 헤르델에서 출판한 〈한여름 밤의 꿈〉 초판 악보의 표지와 첫장이다. ©MSLP

고 그때 작곡했던 서곡에 추가로 몇 편의 곡을 더 새로 작곡해 연극 음악을 완성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의 작품을 대본 작가 아우구스트 빌헬름 쉐레겔(1767~1845)이 독일어로 작업했다.

이렇게 탄생한 음악 작품이 바로 〈한여름 밤의 꿈, Op.61〉이다. 1843년 10월 14일 독일 포츠담의 프리드리히 2세의 상수시 궁전에서 〈한여름 밤의 꿈〉은 멘델스존이 직접 지휘하며 성공적으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서곡을 포함해서 총 14곡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서곡, Op.21〉을 시작으로 스케르초, 요정들의 대화, 타티아나와 요정들의 합창, 오베론과 익살꾼의 안단테, 인터메초 등 총 13개 장면이 흐른다. 멘델스존은 이 작품을 독일의 법학자이자 테너 그리고 평생 친구였던 하인리히 콘라드 쉐라이니츠(1802~1881)에게 헌정했다.

그중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은 9번째 곡 ‘결혼 행진곡’이다. 이 작품은 세도막 형식이며 트럼펫의 경쾌한 선율이 행복한 느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작품이 연주된 최초의 결혼식은 1847년 6월 2일 영국에서 열렸던 도로시와 톰의 결혼식이다. 이후 1858년 영국의 빅토리아 공주가 프로이센

의 프리드리히 왕세자와 결혼하면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결혼 행진곡’을 입장용 곡,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을 퇴장용 곡으로 선곡했다. 이때부터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과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은 전 세계적인 결혼식 행진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생 750여 편의 작품을 쓴 작곡가

멘델스존은 음악으로 〈한여름 밤의 꿈〉을 그렸지만, 실제로 화가가 그린 〈한여름 밤의 꿈〉도 있다. 영국 화가 에드윈 랜시어는 1851년 〈한여름 밤의 꿈 중 한 장면〉을 발표했다. 동명의 셰익스피어의 희곡 3막 중 ‘티타니아와 바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이다. 이 작품은 같은 해

여름 런던에서 열린 왕립 아카데미 전시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그림을 본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일기에 따로 이 작품을 언급할 정도였다. 몇몇의 영국 귀족 소장자를 거쳐 현재 캐나다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참 이 작품은 1847년 영국의 공학자 이삼바드 킹덤 브루넬이 런던에 있는 자신의 집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에드윈 랜시어에게 450파운드를 주고 의뢰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멘델스존은 음악가가 작곡할 수 있는 모든 편성의 작품 작곡을 시도했다. 평생 750여 편의 작품을 쓴 것으로 추정한다. 독주곡부터 합창, 실내악, 교향곡, 오페라, 종교 음악 등 다채로운 작품을 남겼다. 특히 건반 악기 연주를 좋아했던 그는 작품의 약 1/4을 오르간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썼다. 그는 28세에 성직자의 딸인 세실 장르노와 결혼했고, 다섯 자녀를 두었지만 한 명은 유아기에 세상을 떠났다.

1847년 그는 런던 여행에서 돌아와 크게 지쳤다. 심지어 당시 가장 따르던 누나 페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괴로움 속에서 지내던 그는 누나가 떠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한편, 멘델스존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 쓰기를 무척 좋아했던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평생 모았는데, 무려 7천여 통이 전해진다. 그의 자녀들은 이 편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멘델스존의 생각과 당시의 생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역사적 자료로도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일명 〈녹색책〉으로 부르는 이 책은 현재 영국 옥스퍼드 보들리언 도서관에서 보관 중이다.



1. 영국의 미니어처 초상화가 제임스 워런 차일드가 1830년 그린 멘델스존의 모습이다. ©위키피디아
2. 영국 화가 에드윈 랜시어가 1851년에 발표한 〈한여름밤의 꿈 중 한 장면〉은 동명의 셰익스피어의 희곡 3막 중 ‘티타니아와 바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이다. ©위키피디아



노잼 도시 대전 여행이 재밌어지는 도시 인문학

대전의 속사정

여행은 아는 만큼 재밌다. ‘노잼도시 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철도와 함께 성장한 대전의 근현대사가 대전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다. 철도종사자들이 피곤한 일상을 마감했던 철도 관사촌, 급변하는 시대의 틈나바퀴에 맞물린 대전의 역사가 깃든 옛 충남도청과 충남도지사 관사촌 등, 대전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들춰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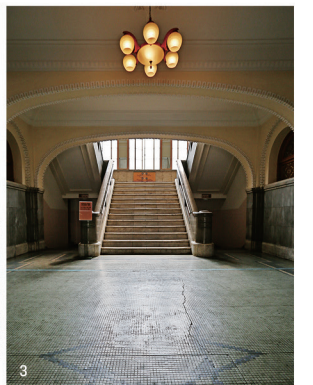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한적한 시골에서 교통 요충지가 된 대전

이맘때 대도시의 날씨는 오뉴월임에도 불구하고 징글맞게 덥다. 굳이 지구온난화를 논하지 않더라도 봄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구를 아프리카처럼 덥다는 뜻으로 ‘대프리카’라 부르지도 오래전부터다. 비단 대구뿐이라, 대전도 대구와 같은 분지라 열섬효과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대전의 옛 이름은 ‘큰 발’을 뜻하는 우리말 ‘한발’에서 유래한다. 이것이 조선 초기에 한자인 ‘대전(大田)’으로 쓰이다 일제강점기에 군·면이 통합되면서 대전리가 대전면, 대전읍, 대전부로 연거푸 성장했다. 대전의 발전은 일제가 추진한 철도부설과 맥이 맞닿아 있다. 당시 대전은 경부선(1905년)과 호남선(1911년)이 만나서 경성(지금의 서울)을 오가는 중간 기착지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은 한순간에 한적한 시골에서 교통 요충지로 환골탈태했다. 사람과 산물이 차고 넘쳤으며 백화점까지 들어섰다. 김영한이 쓴 《한 식민지 청년의 일상과 대전의 기억》에 당시 급변하던 대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본정통(일본인 거리)에서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로 꽉 찼다. 주인은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점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다. 가장 큰 백화점은 ‘미나까이’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12년 대전면의 일본인 수는 3,274명이었다. 주목할 것은 러일전쟁(1905년)을 기준으로 대전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성향이다. 전쟁 이전에는 일확천금을 노린 낭인들이 많았다면 전쟁 이후에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난 이민자들과 투자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전의 역사는 우리나라 철도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국민가요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대전부루스’가 그 증거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영시 오십 분, 세상은 잠이 들고 고요한 이 밤…… 목포행 완행열차’ 대전시는 이 노래를 모티브로 한 ‘대전 0시 축제’를 지난해 8월에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1. 중앙로에 있는 구 조선식산은행 대전지점 건물, 1937년에 건축된 국가등록문화재다.
2. 모더니즘 양식으로 지어진 옛충청남도 청사.
3. 장식적 요소가 많은 구 충남도청 1층 로비.



골목길을 따라 걷는 ‘솔랑시울길’과 근현대사 품은 ‘옛 충남도청’

대전에 철도가 놓이면서 자연스럽게 대전역 일대에 100여 호에 달하는 대규모 철도 관사촌이 형성됐다. 관사에는 철도 관련 기술자,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일본인 철도 공무원들도 여럿 있었다. 현재 남은 관사촌은 동·남·북 세 관사촌 가운데 동 관사촌만 일부 남아있고 남·북 관사촌은 모두 사라졌다. 동 관사촌은 대전역 동광장을 지나 동서교에서 삼가교 사이 소재동 일대에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엔 변화한 동네였으나 지금은 쇠락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 불규칙하게 이어진 관사촌 골목길을 ‘솔랑시울길’이라 부른다. 마을에 있던 ‘솔랑산’과 굽거나 흰 부분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시울’의 합성어다. 낡고 후미진 골목에서 마주하는 풍경들은 죄다 역사의 흔적이자, 추억의 소산들이다. 오래된 것들은 돈벌이로도 활용된다. 레트로 감성을 앞세운 카페와 레스토랑들이다. 영화와 드라마에도 등장했다. <변호인>, <택시운전사>, <서울의 봄> 등 시대극이 대표작이다. 관사촌 여행에 나설 요량이라면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야 더 알차다.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역에서 1km 거리에 대전역을 마주 보는 건물이 있다. 1932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도청사 용도로 지은 옛 충남도청 국가등록문화재 건물이다. 1930년대 유행한 모더니즘 양식을 충실히 반영했다. 단순하고 장식이 적은 외관, 수평이 강조된 평지붕 등이 특징이다. 건축 당시엔 2층이었으나 1960년 무렵 3층을 증축했다. 건물은 각을 잡아놓은 듯 반듯하지만, 포치는 타일을 활용해 입체감을 더하는 등 깨알 같은 맛을 부렸다. 중앙로비의 중앙계단과 지붕을 떠받친 아치 또한 이 건물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조형미가 뽐어나다. 바닥 타일도 예사롭지 않다. 건물의 상징과 같은 꽃 모양의 장식 문양이 바닥 한가운데 자리한다. 조선총독부의 문양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장식을 위한 단순한 조

형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문양은 외벽과 실내 여러 곳에 남아있다.

2층에 올라서면 정면에 도지사실이 있다. 도지사실 내부는 방 3개로 나뉘며 오른쪽부터 관방(官房), 집무실, 응접실이 있다. 그중 집무실의 테라스는 옥상정원처럼 꾸며 놓아 휴게공간으로 활용했다. 테라스 정면에는 대전역사까지 이어진 중앙로가 곧게 뻗어 시원한 풍경을 선사한다. 같은 공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지만 일제강점기의 도지사와 대한민국의 도지사 그리고 여행자의 시선은 사뭇 다를 테다. 분명한 것은 90여년 전 이 방의 첫 번째 주인은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리라. 현재 옛 충남도청사는 대전의 근현대사와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대화유산을 전시하는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활용 중이다.

대전시민의 문화 쉼터, 테미오래

전시관에서 1km 못 미치는 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행정 관사촌인 옛 충남도지사 관사촌이 있다. 1930년대에 지은 관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에 추가로 지은 관사가 어우러져 다양한 건축양식과 함께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현재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우리말 ‘테미오래’로 불린다. 이 지역의 옛 지명인 ‘테미’와 작은 마을을 뜻하는 ‘오래’의 합성어다. ‘테미오래’, ‘관사촌의 오랜 역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테미오래는 2012년까지 충남

도청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지였다.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건축양식은 한식의 온돌, 일식의 다다미, 서양식의 벽난로 등이 뒤섞여 다양하다. 특히 관사마다 제가품 특징이 있어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1호 관사는 건축 도면을 전시해 놓아 전통 온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2호 관사는 전통 놀이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5호 관사는 과거 실제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재현해 시간여행의 묘미까지 느낄 수 있고, 6호 관사는 예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7호 관사부터 10호 관사는 방문객 쉼터로 활용된다. 10채의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지사공관은 상설전시관이다. 공간이 여유로우며 잘 가꾼 정원이 있어 도심 속 쉼터로 손색이 없다. 정원엔 장미가 활짝 피 생기를 더한다.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동·성장·팽창·쇠퇴한다. 팽창기 도시는 광역권으로 확장되거나 또 다른 도시로 이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대전 또한 이 불멸의 공식을 준

행하며 오늘 우리 앞에 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대전을 재발견해야 할 이유다.

1. 옛 충청남도지사공관 2층의 모습.
2. 소재동에 있는 철도 관사.
3. 옛 충남도청은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활용 중이다.
4. 1호 관사는 건축도면을 함께 전시한다.
5. 다른 관사에 비해 여유로운 도지사 관사 정원.



참 이름도 많다. 호남에선 비슷하게 대사리, 대수리, 충청도와 강원도에선 아예 엉뚱하게 올갱이, 올뱅이, 올팽이, 골뱅이, 경상도에선 고동과 비슷하다며 고디, 고동, 그중에서도 안동에선 골부리... 이처럼 부르는 이름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천이 많고 누천년 농경 생활을 해온 우리 민족에게 다슬기는 무척 친숙한 식재료다.

글/사진. 이우석[농고먹기연구소장]

영양만점 건강식 ‘다슬기’



통통하고 살점 가득한 오뉴월이 제철

농사일이 슬슬 힘들어지는 무더운 초여름,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야 하는데 개천에서 잡은 다슬기가 마침 딱 좋았다.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면 그나마 고기 대신 체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 구하기도 쉬운 이 조그만 수중생물이 내륙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동물성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물론 시원하고 씹새래한 맛도 슬슬 떨어진 입맛을 돋우기에 좋았다. 다슬기는 오뉴월이 제철인 연체동물의 일종이다. 작지만 맛과 영양분이 좋아 일일이 까서 챙겨 먹는 식재료다. 흔히 어패류로 구분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조개가 아니다. 대칭되는 껍데기 2장 1쌍으로 둘러싼 이매패류(二枚貝類) 조개가 아니다. 나선 모양 1개의 껍데기에서 나온 배로 기어다니는 복족류(腹足類)다. 바다에 사는 소라나 전복, 고동, 골뱅이 등이 모두 다슬기와 비슷한 종류다. 그중에서도 민물 서식 환경까지 비슷한 우렁이는 다슬기와 생태적으로 가장 닮아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옛날 TV 안테나처럼 생긴 한 쌍의 더듬이도 달려있다. 물에 사는 달팽이와는 여러 가지가 다르니 미리 기갑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프랑스 등 서남유럽에선 달팽이(escargot)를 고급 식재료로 챙겨 먹는다. 전복과 소라야 말할 것도 없다. 다슬기는 오뉴월에 맛이 가장 좋다. 주로 이끼를 먹고 사니 이때 살집도 바삭 오른다. 초봄이나 가을에 잡은 다슬기는 아무리 해감을 잘해도 가끔 뭔가 버석거리는 식감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작은 새끼를 품고 있어서다.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초여름 다슬기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통통하고 부드러운 살점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해장의 특효약으로 꼽는 다슬깃국

강원도 영월군, 충북 괴산군, 경북 안동시, 전북 장수군, 전남 화순군 등에 다슬기를 하는 가게들이 많다. 어느 바다와도 가장 멀리 위치한 충청북도는 지자체마다 어김없이 ‘올갱잇국’을 향토 음식으로 명시해 놓을 지경이다. 방언인 ‘올갱잇국’이 표준말 다슬깃국보다 널리 통용되는 이유도 사람들이 충청도에서 이미 익숙해진 까닭인 듯하다. 저녁 끼니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해장국으로 많이 먹는데 일명 간에 좋다는 ‘해장 특효약’로 꼽히는 까닭이다. 거나하게 술을 마신 후 해장거리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민물의 웅담’으로 불릴 정도다. 실제 다슬기엔 단백질, 타우린, 마그네슘, 아연, 엽산,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이 많이 들었고 특유의 녹색을 내는 엽록소와 아미노산이 지친 간의 해독을 돕는다고 학계에서 설명한다. 비타민 B군(B1, B2, B3 나이아신, B6)도 많이 함유해 빈혈에 좋다고 한다. 게다가 아미노산은 감칠맛을 내는 주성분이다.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보이는 다슬기지만, 최근에 값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도심마다 다슬기 해장국집이 생기는 등 저변이 넓어지며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국내산 공급이 딸리는 원인은 인건비 상승 때문이다. 기계로 갈 수 없는 다슬기는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핀으로 뽑아내야 한다. 예전엔 시골에서 많이 잡아다 까서 팔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일손이 귀한 지경이라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국도 끓이고 전도 부친다. 알맹이를 밥에 비벼 먹기도 한다. 워낙 개체가 작아 토핑으로도 잘 어울린다. 특유의 향과 씹새래한 맛에 길들여진다면 이보다 입맛을 잘 살리는 초여름 국거리도 드물다. 바야흐로 천렵의 계절, 물속에 있던 다슬기가 물의 식탁에 대대적 ‘상륙작전’ 중이다.

주차장 식당

‘올갱잇국’으로 유명한 충북 괴산군에서 유명한 국밥집. 상호와는 달리 주차장은 없고 버스터미널 옆이다. 해장국집답게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데 투실투실한 국내산 다슬기를 쓴다. 다슬기에 반죽을 해 점액을 뺀 다음 된장과 고춧가루를 풀고 토장국처럼 끓여낸다.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82



사평 다슬기 수제비

수제비에 넣어도 시원한 맛이 좋다. 다슬기를 푸짐히 넣고 끓여낸 수제비로 인기가 높은 집이다. 다슬기 국물은 원래 다소 씹새래하지만 수제비 전분이 살짝 녹아들어 부드럽게 어우러진다. 수제비를 많이 넣었는데도 텅텅하지 않고 깔끔하다. 다슬기 전을 놓치면 다소 섭섭하다.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79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장미는 꽃의 여왕이라
는 별명처럼 화려하다. 커다랗고 풍성한 화형에 선명한 색깔
으로 한눈에 마음을 끈다. 주로 꽃다발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
되지만, 요즘엔 화분으로도 많이 키운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내 마음은 그대만이아네 장미



- 학 명 : Rosa spp.
- 물 주 기 : 겉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개화기간)
- 생육온도 : 24~27°C, 30°C 이상 고온 피하기
- 생육장소 :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



장미를 선택할 때는 꽃의 색이나 형태의 화려함보다는, 질병에 강한 품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장 골치아픈 문제 중 하나가 검은무늬병, 일명 흑반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낙엽이 생겨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생육 상태가 나빠진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흰가루병도 잘 생기는데, 품종에 따라 내성의 차이가 있어서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세인트 오브 요코하마, 샬리마, 수잔 윌리엄스 앨리스, 가든 오브 로즈, 리몬첼로, 리사 리사, 체리 보니카, 더블 녹아웃 등이 비교적 질병에 강한 품종이다.

장미를 심을 때는 배수가 잘되면서도 양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용토가 적합하다. 적옥토 알갱이와 퇴비(7:3)를 기본 비율로 한다. 초보자의 경우는 시중에 있는 장미 전용 토양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물은 흙이 마르면 화분 바닥에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듬뿍 준다. 새잎이 나는 계절과 꽃이 필 때는 장미가 왕성하게 물을 빨아들일 때라 화분이 빨리 마른다. 물은 오전 중에 주는 것이 좋는데, 밤에 물을 주게 되면 화분 바닥에 흘러나온 물이 충분히 마르지 않고, 이는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모든 꽃이 그렇듯 필 때는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그러나 꽃잎이 떨어지면 볼품없어지고, 시든 꽃을 방치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미꽃이 시들었다면, 잘라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가을에 붉게 물드는 장미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품종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꽃자루를 남겨두어도 괜찮다. 다만, 사철 개화성이나 반복 개화성 품종의 경우는 열매가 성숙하며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두 번째 꽃이 피기 어려워진다. 꽃잎이 떨어지고 나서는 유기질 고품 비료를 줘서 두 번째 꽃, 세 번째 꽃을 피울 힘을 만들어 준다. 장미 가지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면, 순따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순이 올라오면 가장 윗부분의 순을 따준다. 순따주기를 한 부분 바로 아래서 새싹이 자라나고 가지가 양쪽으로 뻗어 굵고 풍성한 수형을 만들 수 있다.

《그린덱》김민주 대표의 ADVICE

장미는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이나 땅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햇빛을 잘 받아야 건강하게 자란다. 장미는 진딧물류로 인한 그을음병이 발생하기 쉽고, 통풍이 잘 안되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흰가루병, 습한 환경에서 걸릴 수 있는 검은무늬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보이면, 초기에 약제를 살포해 방어를 해줘야 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튼튼하게 장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살 면 서 한 번 쯤 만나 게 될, 행 운

일러스트, 나요

#01
당신을
만나서

유정임_경기도 의정부시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가 있다. 모든 인생이 담긴 드라마 ‘꼭삭 속았수다’다. 한번 빠지면 깊게 빠지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봐야지 했다가 동영상으로 짧게 시청하기 시작했다.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터졌다. 중년이 되고 보니 어머니의 자리는 물론 아버지의 빈자리, 자식의 자리도 보여 더 많이 울컥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것은 극 중 중심인물인 ‘관식’이와 ‘애순’이 이야기일 것이다. 오직 애순이만 바라보고 아끼는 관식의 사랑은 짝한 애순이를 누구보다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세월 따라 그들의 사랑은 자식에게 스며들었다.

내 삶에는 자식이라면 끔찍한 어머니도, 오랜 세월 지켜주는 든든한 아버지도 없었다. 하지만 딱 하나 있는 게 있었다. 그건 바로 관식이 같은 남편이었다. 20대의 마지막 겨울,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성실하다는 말에 소개를 받았지만, 선뜻 마음이 가진 않았다. 눈이 온다는 그의 말에 유리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그대로 머리를 박고 말았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 내어 웃었고, 나는 민망함을 감추며 웃었다. 거기까지였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가 따라오며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 예의바르게 거절했다.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연락을 해왔고 성실하게 나를 찾아와 마음을 전했다.

결혼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는 처음 만난 날처럼 흰 눈이 내려앉은 머리가 아닌 새하얗게 센 머리로 여전히 내 옆을 지키고 있다. 내가 말하면 들어주고 웃긴 이야기를 하면 소리 내어 웃어주는 유일한 내 편으로. 첫 아이를 7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8개월 만에 낳았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남편은 버팀목이었다. 남편은 내게 살뜰한 어머니였고, 든든한 아버지였다. 그해 겨울, 남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가 끈질기게 내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은 없었을 것이다.

오랜 독일 유학을 마치고 30대 초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낙담하던 차였다.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독일계 회사의 독일인 대표 비서 및 관리직 업무였다. 나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독일계 회사에 유일한 신입 지원자였다. 게다가 나이도 많은.

오랜 유학을 지원해 준 부모님께, 첫 월급을 받아 내의라도 사드리고 싶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면접 장소로 갔다. 인사동 한복판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었었는데, 일찍 도착해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기다렸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외국 할아버지와 한국인 여러 명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난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회의실에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다. 면접관은 조금 전 햄버거를 먹던 할아버지였다. 아니, 대표님이었다. 대표님은 나에게 관련 경력이 있는지 물었다. 잔뜩 주눅 든 채 아르바이트 경험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독일에서 방송국 통역과 현장 코디네이터를 했었어요.”

대표님은 웃으며 넉넉한 미소로 말했다.

“그것도 경력이지.”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식 출근하게 되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장 동료들 사이, 직장인 예절을 배우느라 진땀을 뺐다. 자유로운 독일 생활에 젖어 상급자에 대한 예절을 몰라 된통 혼난 후 화장실에서 눈물 흘린 적도 많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다 괜찮아요?” 안부를 물으며, 흰 수염 대표님이 넉넉히 웃어 주는 걸 보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천천히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동료 직원들과 동화하며, 중요한 제품의 영업 관리를 맡는 성과를 냈다.

모든 일은 시간이 흐른 후 알게 되는 것 같다. 어떤 만남은 처음과 달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한 적도 있으니 말이다. 십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대표님과의 만남은 행운이라 느껴진다. 지금도 힘든 일이 생겨 공공거리면, 활짝 웃으며 출근한 직원들을 향해 “다 괜찮아요?”라고 묻던 대표님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02
“다
괜찮아요?”

김윤희_경기도 안산시





#03 나의 행운은 어디 있을까?

정의주_경기도 고양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어쩔 이렇게 당첨 번호만 쓱쓱 피해 갔는데... 번호 하나 맞지 않은 복권을 사납게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개꿈 하나 믿고 희망에 부풀었던 일주일이 허망했다. 난 행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속된 말로 운빨이라는 게 없다.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딱 거기까지다. 나에게 행운이라는 것은 그저 남의 떡이고, 멀리서 아른거리며 놀려대는 신기루일 뿐이다. 행운의 여신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장 낮은 당첨금이라는 소박한 행운조차 안 주어질 리가 없다.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다. 나도 깜짝선물 같은 행운을 받아 보고 싶단 말이다. 불쑥 행운이 찾아오는 남들이 질투 났고, 행운의 부스러기조차 맛보지 못하는 내 삶이 참 딱딱하게 여겨져 우울했다. 그런 내 앞에 딸아이가 봉지 하나를 쓱 내밀었다.

“학교 앞에서 파는 떡인데, 맛있어서 엄마 것도 사 왔어.” 노란 고물이 잔뜩 묻은 떡은 우울한 기분을 날릴 만큼 고소하고 맛있었다.

“이렇게 맛있는 떡도 사다 주고. 이런 딸 없다. 엄마는 정말 행운인 줄 알아야 해.” 딸이 공치사를 했다.

“그럼. 알지. 우리 딸, 엄마에게 행운이지. 아주 큰 행운.”

딸의 말에 맞장구를 치다 나는 번뜩 딸을 바라봤다. 나의 행운. 평생 한번도 내게 온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행운이 바로 코앞에 앉아 생글 생글 웃고 있다. 그러고 보니,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 아래 태어난 것도 행운이었다. 웅장한 내 마음을 푸근히 받아 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도 행운이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무색하게 몇 배의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는 아이들을 가진 것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무심한 나를 한결같이 대해 주는 친구를 둔 것도 모두 행운이었다. 전쟁이 한창인 곳이나 기아로 삶의 기로에 서야 하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운인가. 나는 엄청난 행운과 함께 태어났고, 행운은 한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지금 나의 삶은 수많은 행운 덕분이었다. 눈앞에 있는 파랑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미틸과 틸틸처럼, 난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행운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투덜대기만 했다. 꾸깃꾸깃 구겨진 채 처박혀 있는 복권이 눈에 들어왔다. 멧쩍음에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한입 가득 달고 고소한 떡을 베어 물고 꼭꼭 씹었다.

어느 날 아이의 학교 알림에서 공지가 왔다. ‘학부모 영어 회화 수업 인원 모집.’ 내용인즉, 원어민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오후 시간에 무료 회화 수업을 진행하니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공지를 보고 가만 생각해 보았다. ‘이제 막내가 유치원에 입학하니 여유가 좀 있는데 한번 해 볼까? 그런데 옆집 엄마도 신청한 거 아니야? 나는 아는 사람들 많은 데서 어리바리하게 영어로 말하는 거 너무 부끄러운데... 에이, 하지말자.’ 이렇게 혼자서 마음으로 단념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잘 아는 남편이 옆에서 말을 보탰다. “한 번 해봐. 좋은 기회네.” 몇 년 전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자기 계발에 힘쓰는 모습들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아 나도 예전에 놓았던 영어 공부를 혼자서 시작하게 되었다. 혼자서 하는 공부니, 체계는 없지만 참 재미있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공부했더니 이제는 영어가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써먹어야 실력이 늘지 않겠는가. 그 아쉬움이 늘 마음에 있던 차에 이렇게 학교의 알림을 받게 된 것이다. 어라. 그런데 영어 회화 수업 교실을 찾아가니 교실 문이 잠겨 있었다.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어리둥절하던 차에 원어민 선생님이 보이는 분이 복도를 걸어왔다. “헬...헬로우” “하이” 나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 수업에 신청한 사람이 나뿐인가요?” “I think so.” 그는 웃으며 말했다. 수업 시간에 매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보통 신청을 하고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그만 속으로 ‘야호!’를 외쳤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 내가 원하는 주제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단, 제발 그만두지는 말라고 했다. 속으로 나는 가만 웃으면 생각했다. ‘하하. 그만두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반에서 제일 가는 우등생이 될게요!’

#04 다시 시작하는 공부

김혜연_경기도 안성시



다음호 주제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 상처’입니다.
‘상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3~4매 (원고 접수 시 주소와 연락처 기재 必) 마감 5월 30일 문의전화 (02)511-7053 이메일 essayds@naver.com
우편 (우) 0653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하신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 표절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법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편리하게 신분 확인하기

선거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지갑을 챙기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 누구나 있었을 것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글/사진: 곽은지 [디지털 교육 강사]



01 PASS 앱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Play 스토어], iOS 스마트폰은 [App Store]에서 ‘PASS’를 검색한 후 사용 중인 통신사의 PASS 앱을 설치한다.

PASS by KT / PASS by SKT / PASS by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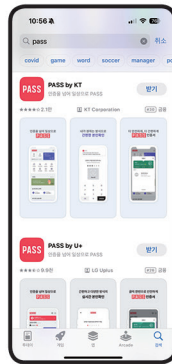
*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PASS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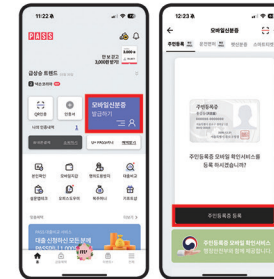


iOS
[App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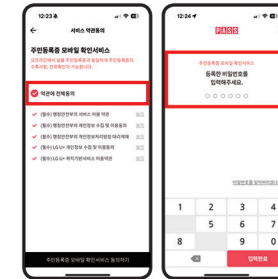


03 PASS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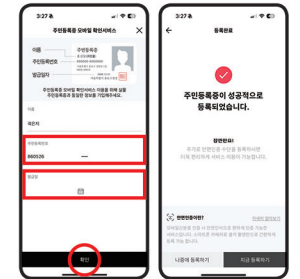
①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를 터치하고, [주민등록]을 선택 후 [주민등록증 등록]을 터치한다.



② 약관에 전체 동의한 후 등록된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일을 입력한 후 [확인]을 터치하면 주민등록증이 등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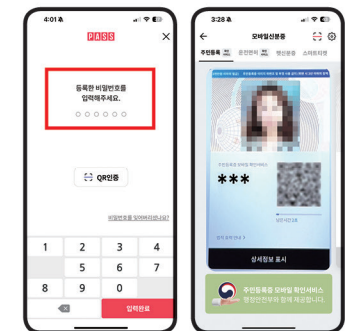
04 PASS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기

① PASS 앱을 열고 [***님의 모바일 신분증]을 터치한다.



②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

* [상세 정보 표시]를 터치하면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함께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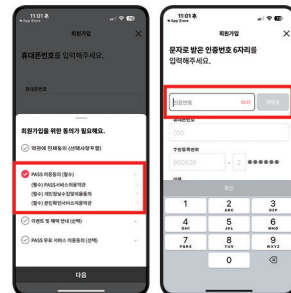


02 PASS 앱 회원 가입하기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터치한다.



② (필수) 약관에 동의 후 문자로 받은 인증 번호 6자리를 입력한다.



③ 앱 실행 시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를 2번 입력한다.





Recipe_01

두릅을 올린 구운 두부



<재료>

두릅 6대, 두부 1/2모, 소금 약간, 전분 2큰술, 식용유 약간
양념: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2작은술, 통깨 1/2작은술, 참기름 1/2작은술

<만드는법>

1. 두릅의 밑동을 손질하고 끓는 물에 약 20초간 데친 후 찬물에 식히고 물기를 제거한다.
2. 두부는 6등분 하고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을 뿌려 밑간한다.
3. 두부의 겉면에 전분을 고루 묻히고 중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4. 볼에 양념 재료를 모두 넣고 고루 섞는다.
5. 그릇에 구운 두부를 담고 두부 위에 데친 두릅을 올린 후 양념을 고루 뿌려 완성한다.

Recipe_02

제로슈거 맥심 바나나 케이크



<재료>

맥심 모카골드 제로슈거 커피믹스 4봉, 바나나 4개, 달걀 2개, 중력분 200g, 녹인 버터 100g, 요거트 2큰술, 베이킹파우더 2작은술, 소금 약간
토핑: 제로슈거 맥심 2봉, 크림치즈 200g, 바나나 1개

<만드는법>

- 케이크:** 1. 맥심 4봉에 뜨거운 물 50ml를 넣고 녹인 후, 바나나를 넣고 으깨 다음, 나머지 재료를 모두 넣고 섞는다.
2. ①을 원형 케이크 틀에 넣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30분간 굽고, 윗면을 잘라내 평평하게 만든다.
3. 만들어진 커피 크림치즈를 윗면에 골고루 펴 바른 후 바나나를 올려 완성한다.
- 토핑:** 1. 볼에 크림치즈와 뜨거운 물 30ml에 녹인 맥심 2봉을 넣고 휘퍼로 잘 섞는다.
2. 바나나는 4등분 한 후 단면에 설탕을 뿌리고 토치로 노릇하게 만든다.
(설탕, 토치는 생략 가능)

재난·재해 지역을 위한 지역사회 돕기 (주)동서·동서식품,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3억 원 기탁

Dongsuh News_01

(주)동서와 동서식품이 4월 2일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3억 원 ((주)동서 1억 원·동서식품 2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복구 기간도 길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결정되었다. 동서식품은 지난 3월 26일 커피믹스, 캔 커피, 시리얼 바 등 3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한 바 있다.

(주)동서와 동서식품은 “이번 산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분들과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 2023년 집중 호우 수해 성금 및 구호물품 기부 등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지역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목원 봉사활동 천리포수목원 무궁화 가지치기 및 동백나무 심기 활동 펼쳐

Dongsuh News_02

동서식품이 4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천리포수목원은 201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은 국내 최다 식물종을 보유한 수목원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식목일이 있는 4월을 맞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수목원 관계자로부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수목원으로 나가 직접 무궁화의 묵은 가지를 정리하고 동백나무를 심는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서식품 이남구 과장은 “무궁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를 정리하고 동백나무를 심으면서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직접 실천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플랫폼과 매칭 그랜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 겹으로 더 바삭한 초코 시리얼과 귀여운 쿠키의 만남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 출시

Dongsuh News_03

동서식품이 신제품 시리얼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를 출시했다. 신제품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는 크리치오 시리얼에 고소한 쿠키를 담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이는 제품이다. 특히 ‘치오’ 캐릭터와 ‘치오’의 셰프 모자, 우유 팩 등 다양하고 귀여운 모양의 쿠키가 보는 재미를 함께 선사한다. 포스트 크리치오는 지난해 5월 새롭게 선보인 시리얼이다. 세 겹 구조로 만들어져 우유와 곁들여도 오랫동안 바삭함이 유지되며, 풍부한 초콜릿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5가지 곡물과 8가지 비타민을 함유하여 우유 없이 간편한 영양 스낵으로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치오(Cheehoh)’라는 귀여운 고슴도치 셰프 캐릭터가 재미를 더하며 인기를 모았다. 동서식품은 이번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

키 출시를 맞아 디지털 필름을 공개하고 향후 제품 샘플링,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서식품 김가영 마케팅 매니저는 “신제품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는 세 겹의 바삭한 초코 시리얼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귀여운 쿠키를 함께 담아 먹는 즐거움에 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맛과 영양에 재미까지 더한 다양한 시리얼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크 초콜릿과 부드러운 라떼의 완벽한 밸런스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 출시

Dongsuh News_04

동서식품이 커피와 다크 초콜릿의 풍부한 맛을 라떼로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신제품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를 출시했다.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는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한 카누 커피에 진한 다크 초콜릿 풍미의 쇼콜라 블렌드를 더해 커피와 초콜릿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드러운 라떼 크림을 함유해 풍부한 우유의 맛과 기분 좋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스틱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카누는 다양해지는 소비자 취향을 겨냥해 트렌디한 맛의 라떼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제품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를 포함해 카누 에스프레소 밀크티 라떼,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 라떼 등 총 9종의 카누 라떼 라인업을 갖췄다.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8개입 기준 4,550원, 24개입 기준 13,250

원이다. 한편,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는 동서식품 제품 중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서비스(푸드QR)를 도입하였다.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 패키지에 인쇄된 푸드QR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표시, 주의사항, 취급 방법, 고객센터 안내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동서식품은 앞으로 푸드QR 적용 제품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4월 독자 이벤트 후기 삶의 향기 독자와 함께한 커피 클래스

Event Review_01

커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조금했던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4월, 맥심플랜트에서 ‘2025 독자 초청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삶의 향기>를 응원하는 구독자 열두 분이 그 주인공으로 초청되어 커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서식품 브랜드 체험사업팀에서 준비한 강연에 집중하며,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커피’라는 주제 하나로 금세 친해져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향기>는 독자 여러분을 만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커피처럼 향기로운 행복이 가득하길”

- 김라희(경기용인시)



향기로운 만남 이벤트에 행운의 당첨이 되어 너무나 가고 싶었던 맥심 플랜트에 다녀왔습니다.

당첨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문자로 안내해 주실 때부터 담당자님의 친절한 마음씨에 기분 좋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다행히 커피 시음이 시작할 때 도착하여 처음부터 다양한 맛의 커피를 마실 수 있었고 박 대리님의 유쾌하고 머릿속에 콕콕 박히게 해 주신 간결한 설명으로 시간 내내 지루함이 전혀 없었던 강연이었습니다.

커피를 밥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생애 처음 오로지 커피만을 주제로 한 강연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커피의 원산지부터 재배환경, 로스팅 과정에 따른 맛의 변화, 커피콩을 건조하는 방식, 커피의 등급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열심히 듣고 블라인드는 없지만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했던 경험은 생애 처음이었기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연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마지막이 아니고 자주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를 했던 분들과 짧은 시간 나눈 담소도 저를 기쁘게 했고, 무엇보다 그날의 더할 나위 없었던 눈부신 날씨와 동서식품 체험사업팀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응대는 저에게는 즐거운 소풍을 다녀온 것 같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로 배웅해 주시고 가는 길 선물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의 앞날에 커피처럼 향기로운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 본 후기는 이벤트에 참가하신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후기 중 선정된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5·6월호를 읽고 떠오르는 신간이나 기억에 남는 도서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이메일) essayds@naver.com * 접수 마감: 2025년 5월 30일(금) (이름, 연락처, 주소 기재)

아날로그의 감성 그 진심을 담다 독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가득 찬 예쁜 엽서를 소개합니다

Pretty Postcard_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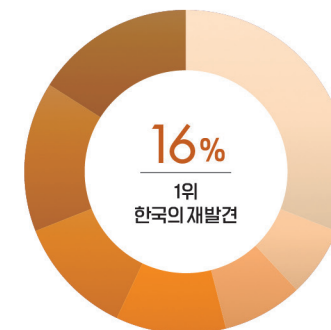


* 예쁜 엽서 당첨자

김선우_ 광주 서구
김자경_ 경기 평택시
김태연_ 서울 강남구
천선녀_ 인천 서구
최혜숙_ 서울 구로구

선호도 칼럼 조사 3·4월호 독자 여러분의 선택

Preference Column_03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총 564건(4월 3일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칼럼으로 ‘한국의 재발견’과 ‘클래식 산책’, ‘도시를 걷다’, ‘길 위의 시간’, ‘올댓 커피’, ‘차 한 잔의 향기’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위] 한국의 재발견	16%	[4위] 길 위의 시간	11%
[2위] 클래식 산책	15%	[5위] 올댓 커피	8%
[3위] 도시를 걷다	12%	[6위] 차 한 잔의 향기	7%
		기타	31%

독자의견



한국의 재발견
커피 일을 하고 있지만 커피 음료뿐만 아니라 차문화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라도 배워간다고 해야 할까요? 알아 가는 기쁨을 늘 하게 해주는 삶의 향기♡ 이재봉_대전 유성구



도시를 걷다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바라보던 풍광이 생각나서 다시 꼭 가고 싶어졌습니다. 최은숙_서울 동대문구



올 댓 커피
일본은 녹차 같은 차가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커피 시장이 매우 크고 다양하며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조윤경_서울 동작구



클래식 산책
라흐마니노프의 연애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여린 연인들이 세상 몰래 나누던 예쁜 사랑의 순간이 흐른 작품들'이라는 문장도 낭만적이라 좋았습니다. 하근영_서울 용산구



길 위의 시간
낮선 나라 폴란드,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도시 자코파네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글과 사진만으로도 작가분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 들었네요. 박연주_서울 성동구



차 한 잔의 향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통분모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일 것이다.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새삼 느낀다. 강금숙_경남 진주시

독자엽서 당첨자

- 강나영 인천 동구
- 강영순 경기 오산시
- 고춘분 경기 양평군
- 권영자 서울 노원구
- 권윤진 강원 속초시
- 김남재 서울 동작구
- 김미숙 경기 광주시
- 김승일 전북 전주시
- 김연수 강원 원주시
- 김영자 서울 노원구
- 김영중 충북 청주시
- 김창현 서울 광진구
- 김현아 서울 중랑구
- 박맹순 전남 순천시
- 박보숙 경기 평택시
- 서영민 경기 안양시
- 서용숙 인천 미추홀구
- 성석경 서울 강북구
- 손현숙 부산 수영구
- 송미령 부산 북구
- 신효심 서울 중구
- 양정화 경기 수원시
- 오금윤 경기 용인시
- 이건학 서울 중구
- 이명희 경남 창원시
- 이미경 대구 동구
- 이석용 서울 중구
- 이수영 서울 마포구
- 이연숙 충남 당진시
- 이연주 서울 양천구
- 장욱자 충남 서천군
- 장원미 제주특별자치도
- 전옥자 경기 안양시
- 전태정 경기 평택시
- 정유봉 경기 수원시
- 조상미 부산 사하구
- 주광옥 충북 청주시
- 지순애 경기 부천시
- 최옥희 인천 강화군
- 최익천 충남 당진시
- 표상률 경남 김해시
- 하선정 부산 금정구
- 하정아 경남 창원시
- 한미정 경남 김해시
- 한영만 충북 청주시
- 함영화 경기 고양시
- 현정희 세종특별자치시
- 홍승하 경기 성남시
- 홍지연 경기 시흥시
- 황태선 서울 강남구

※ 독자상품은 5월 중 배송됩니다.

독자퀴즈



현재 수집가인 윤성근 작가가 사연(기담)을 수집하게 된 계기는 옛사랑의 추억이 담긴 책 한 권을 찾는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르신이 애타게 찾았던 구라타 하쿠조가 쓴 책 이름은 무엇인가?

★ 5쪽을 참고해 독자 엽서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응모하세요. 마감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 문제로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엽서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표기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호 정답

나탈리아 사티나

3·4월호 정답자는 537명입니다.

← 브랜드 스토리



치오는 오늘도 신메뉴 개발 중
바삭한 크리치오에 귀여운 쿠키를 더해
크리치오 쿠키 탄생

새로운 세 겹 바삭한 레시피
크리치오 쿠키

진한 집중 한잔



Maxim. 모카골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는 동서식품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외보입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의 내용에 대하여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불가피하게 사외보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경로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독 신청 안내

당사의 사외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께서는 ①홈페이지 본인 인증 또는 ②독자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www.dongsuh.co.kr → 홍보센터 → 웹진 삶의 향기
→ 신규 구독 신청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 호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독자 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2.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종지요청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발송 및 당첨자 경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당사는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 케이아트만㈜, ㈜인스팟, 월드피에이디
2. 위탁 업무 내용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3. 동서식품(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및 엽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의사항] 사외보〈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편집실

Tel : 02-511-7053 / E-mail : sarmhyang@naver.com (수탁자 케이아트만㈜에서 진행합니다.)

· 이 름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 신규 ☐ 변경 ☐ 중지 ☐ 기존

독 / 자 / 의 / 권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칼럼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퀴즈/정/답

· 정 답 :

· 연락처 :

정답자 상품 배송을 위해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무인우편
수취인 후남 복림

발송유료기간
2025. 05. 01 ~ 2027. 04. 30

서울시서울우체국
제 41389호

받는 사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층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06530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2025 * No.52
May + June

창간원 인터넷 가페 동사상품 홈페이지
www.dongsun.co.kr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는
매스텔 향기의 시트로운 이룹니다

창간원, 복림, 창간원 ©

